

성인여성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김선령 · 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전공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nt of Women's Skin Care by Cloth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Sun-Ryeong Kim and Tai-Soon Yoo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yung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r the adult woman that provides the investigation, analysis,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cloth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depends on their skin care grade. Data were collected from 477 adult females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dispersion analysis, ANOVA, t-test, Duncan test utilizing SPSS 10.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younger and the more educated respondents were the better their skin care. Also, the more they spent on clothes, the more they spent on cosmetic products. For occupations, professionals were to have better skin care. It was expose that 20s and 30s are shown difference for all low rank leading persons except conformity in the midst of it is clothing behavior main point by skin care management degree, 40s appeared that difference is seen in interest, psychological dependence, aesthetics, management. It was expose that difference does not exist in liver that is clothing behavior main point by skin care administration degree in 50s. 20s appeared difference in general self-efficacy divination in self-efficacy, and 30s appeared that skin care degree is high as general self-efficacy and physical self-efficacy are high. It was expose that 40s and 50s are no difference of self-efficacy in between group by skin care degree.

Key words : skin care, self-efficacy, clothing behavior

1. 서 론

오늘날 생활의 정신적, 경제적 여유는 자아의식의 발달을 가져오고 이로인해 삶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대인접촉이 활발해지고 그에따라 외모는 대화의 내용이나 몸짓, 행위 이상으로 개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욕구실현 및 대인 상호작용의 한 방편으로서의 피부 및 의복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피부 중 안면 피부는 첫 인상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며 이로인해 현대인들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은 여성들 뿐 만 아니라 남, 여 구별 없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의복뿐만 아니라 화장을 함으로써 자기다움을 더 강조할 수 있으며, 외모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어 열등감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식에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분의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Graham · Kligman, 1985). 피부미용 상 문제들로 인해 짜증, 우울을 경

험하고 이들은 자아존중감 또한 낮음을 볼 수 있었다(김봉인 · 나지은, 1999).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의복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신체적 자기가 가지는 사회적 · 심리적 의미이다. 신체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자기에게나 타인으로부터 직접 보이고 접촉되는 사회적 대상이기도 하므로 여성들의 심리와 의복태도는 그들의 신체에 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Rudd · Lennon, 1994). 이와같이 인간의 행위는 특수한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는 개별적으로 설명되어야하며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헤어스타일(박수진 외, 2005), 눈썹메이크업(하선옥 외, 2005), 색조화장품 사용(조규화 · 이귀영, 2005), 화장행동(백경진 · 김미영, 2004)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피부관리행동과 관리실 사용 등과 관련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피부관리 정도와 의복행동,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여성들의 자기관리와 피부관리실 운영에 구체적인 고객 대응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Corresponding author; Tai-Soon Yoo
Tel. +82-53-850-3531, Fax. +82-53-850-3531
E-mail: tsyoo@cu.ac.kr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 수입, 월평균 의류지출비, 월평균 기초화장품지출비)에 따라 피부관리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 피부관리 정도에 따라 의복행동요인(흥미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간에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본다. 셋째, 피부관리 정도에 따라 연령별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피부관리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화장동작을 스킨케어(Skin Care)라 부르고 있으며 이 스킨케어를 이용한 화장품을 기초화장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초화장품은 건강한 피부를 대상으로 하여 그 피부를 정상적이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의약품과 다른 점이다.

피부노화의 역제가 화장품 사용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노화는 생명과학(Life Science)의 한 현상이다. 화장품이 지향하는 것은 노화방지라고 할 수 있는데 피부노화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예방적인 차원으로서 화장품의 노화방지에 대한 역할은 크다. 그러나 이것들은 피부의 악영향인자, 예를들면 자외선, 건조, 산화제의 대책으로 21세기에는 노화의 해명이 이루어져 세포분열의 제어에 의한 노화의 역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피부보습과 자외선으로부터의 보호가 피부노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피부 보습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피부관리는 첫째, 영양과 건강 등 내적인 관리와 둘째, 세안과 팩, 크림이나 영양 애플의 사용, 마사지,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미용기기의 사용 등 외적인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외적관리는 다시 피부 속 조직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외적관리와 피부의 겉조직의 표피의 각질층, 모공에 영향을 주는 표면적인 외적관리로 나뉜다. 내적인 외적관리는 피부의 림프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색을 맑고 건강하게 하며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조직에 영양, 산소공급, 노폐물, 독소의 제거에 효과가 좋으므로 피부각층의 노화지연은 물론 어느정도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표면적인 외적관리는 피부의 겉조직인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며 모공을 청결히 하므로, 피부전체가 항상 깨끗하고 윤기가 나게 개인적인 위생관리를 잘 하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관리법으로는 철저한 세안, 마사지, 팩, 크림이나 영양애플의 사용, 진공흡입기로 피지를 제거하는 것, 직류전기로 딥 클렌징을 하는 것, 술을 이용한 딥 클렌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부 조건에 맞는 기초화장품을 잘 선택하여 노화 주름방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과 아이크림, 그리고 자외선의 영향으로 오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 여성들은 자신의 피부상태는 고

려하지 않고 광고 또는 선전 책자를 통해서 기초 화장품 및 피부관리 제품을 구입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광옥·이정란, 1998).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하여 피부관리교육과 피부관리실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2.2. 의복행동

의복행동은 사람들의 의복착용 행동과 의복구매 행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으로 자신 속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는 착용자의 여러가지 심리상태를 의복을 통하여 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Horn & Gurel(1981)은 주장하기를 의복은 자기증진을 위한 욕구만족에 하나의 긍정적 수단을 제공한다고 하였고 자존심, 자아개념, 자기확신,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의복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인 의복과 외모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의복과 외모에 높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의복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기분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한 자기도취나 자아만족도는 착용자의 감정이나 정서반응에 차이를 보이며, 착용자의 감정 상태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의복행동이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Hurlock(1976)의 연구에 의하면, 의복이 본인들에게 잘 어울린다고 느낄 때 조사대상자의 88%가 ‘능률이 오른다’로 표현했고, 97%는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95%는 ‘마음의 기쁨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임숙자(1992)도 의복을 잘 입었을 경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행복과 잠재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능률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흥미성,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의복의 흥미성과 유사한 용어들로 의복중요도, 의복에 대한 인식, 의복에 대한 관심, 제품관여, 의복관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복에 관심을 두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흥미성은 개인이 의복구매에 대해 갖는 흥미나 관심도 또는 중요성의 정도를 나타낸다(문선정, 1995).

동조성은 타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사회적 승인을 획득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집단 내에서 의복의 규범을 따르며, 다른 사람의 의복과 유사해지기를 바라는 성향이라고 하였고, 동조성을 통하여 사회적 인정을 얻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고 하였다(추대규, 1994).

심리적 의존성은 의복을 선택, 착용함으로써 행복감이나 자신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등 의복에 의해 기분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의복에 대한 심리적 변화는 심리적인 영향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착용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한미숙, 2002).

심미성이란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려는 행위로 미적 감각이 높으며, 유행과 무관하게 아

름다운 외모를 위해 신경쓰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좋아하는 행동을, 의복의 관리성은 의복을 계획성 있게 구매하며, 시간, 금전, 노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으로 의복의 계획 구매와 사용 및 정리정돈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며, 유행성은 유행의 확산과정에서 채택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정도나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하며 유행 스타일을 타인들보다 먼저 채택하는 의복행동을 의미한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으로써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므로, 개인이 성취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장면에서 자신이 어떤 성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있는가를 지각하는 것(효능에 대한 자기 지각)은 미래의 행위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미친다(Bandura, 1982).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 지각된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이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을 의미하며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지각된 능력은 성취행동의 조직과 규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자기효능감의 기능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본다(우희정, 1993).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기대이므로 능력에 대한 지각보다 오히려 행동변화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게하고 이에따라 행동도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효능판단을 할 때 지각된 능력, 과제의 난이도, 노력의 정도, 외부 도움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의 패턴 등 여러 가지 단서를 고려한다(Schunk, 198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9월 2일부터 12일 사이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만 59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조사에 응하여 준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512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자료 중에서 응답내용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47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도구

피부관리정도 측정도구(Skin Care Scale: SCS) : 김봉인(1998), 최은영(1998), 임혜원(1999)의 도구를 수정·보완 사용.

의복행동 측정도구(Clothing Behavior Scale: CBS) : Creekmore(1974), 김순구(1993), 이은실(1999)의 의복행동을 중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여겨진 6개 요인을 택하여 타당도(Cronbach α .743) 검사를 실시 한 후 사용.

자기효능감 측정도구(Self-Efficacy Scale : SES) :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Sherer et al.(1982)이 제작한 도구를,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Ryckman et al.(1982)이 제작한 도구를 번안하여서,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조기여(199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3.3. 자료분석

SPSS 10.0을 이용하여 인구통계변인에 따라 피부관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산술평균,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다. 피부관리 정도가 높거나 낮은 그룹의 중간에 위치한 그룹은 제외시켰다. 연령별 피부관리정도과 자기효능감, 의복행동 각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피부관리 정도와 연령에 따라 자기효능감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단변인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 t-test,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 정도의 차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된 성인여성 477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같이 분석을 하여 본 결과 피부관리 정도가 30대 연령층이 가장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피부관리 정도가 미혼과 기혼사이에 평균차이는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각각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부관리의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p < .05$). 직업으로는 전문직(3.1679)과 판매서비스직(2.972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전문직이 판매서비스직에 비하여 피부관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의 분석결과를 보면 월평균 수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월평균 수입에 따라 피부관리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의류 지출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분석결과 5만원미만(2.7354)과 5~10만원미만(3.0809), 10~20만원미만(3.1528), 20~30만원미만(3.1915), 30만원이상(3.2587)이 각각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월평균 의류 지출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도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기초화장품 지출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Table 1.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피부관리의 정도

변수	구분	N	Mean	SD	t (p-value)	
연령	20대	b	198	3.0745	.5578	
	30대	b	148	3.0959	.6089	3.303
	40대	a b	59	2.9881	.6753	(.020)*
	50대	a	50	2.8120	.5539	
결혼여부	미혼		211	3.0851	.5952	1.457
	기혼		244	3.0037	.5935	(.146)
학력	중졸이하	a	15	2.5300	.6106	
	고졸	b	123	2.9285	.6118	5.355
	대학재	b	46	3.0522	.5330	(.000)**
	대졸	b	254	3.1128	.5742	
	대학원이상	b	17	3.2147	.6299	
직업	학생	a b	39	3.0679	.5778	
	전업주부	a b	108	2.9551	.5650	
	전문직	b	156	3.1679	.6019	
	사무직	a b	47	3.0606	.5815	2.190
	판매/서비스직	a	68	2.9721	.6410	(.034)*
	관리직	a b	10	2.7300	.3020	
	기술직	a b	10	2.9300	.5345	
	기타	a b	16	2.8531	.6198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a	56	2.9589	.6533
100~200만원미만	a b	134	3.0530	.5916	1.163	
200~300만원미만	a b	138	3.0062	.6169	(.326)	
300~400만원미만	a b	69	3.0420	.5795		
400만원이상	b	56	3.1804	.5052		
월평균 의류 지출비	5만원미만	a	99	2.7354	.5901	
5~10만원미만	b	178	3.0809	.5674	9.928	
10~20만원미만	b	107	3.1528	.5507	(.000)**	
20~30만원미만	b	47	3.1915	.5498		
30만원이상	b	23	3.2587	.6765		
월평균 품 지출비	1만원미만	a	65	2.6515	.6560	
기초 화장품 1~3만원미만	a	122	2.8373	.4859	17.803	
3~6만원미만	b	131	3.1511	.5142	(.000)**	
6~10만원미만	b c	83	3.2663	.5813		
10~15만원미만	b c	38	3.3066	.5530		

*p<.05, **p<.01

있었다(p<.01).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3~6만원 미만(3.1511)은 15만원이상(3.4875)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월평균 기초화장품 지출비가 많을수록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 행동요인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 행동요인의 분석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2를 보면 20대는 동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 즉 흥미성과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흥미성은 피부관리가 높은(3.7262) 집단이 낮은(3.3811)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았고, 심리적 의존성도 피부관리가 높은(3.7588) 집단이 낮은

Table 2. 20대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 행동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피부관리	N	Mean	SD	t (p-value)
흥미성	높음	103	3.7262	.5773	3.834
	낮음	95	3.3811	.6879	(.000)**
동조성	높음	101	2.4000	.5926	-.361
	낮음	94	2.4319	.6374	(.718)
심리적 의존성	높음	102	3.7588	.5260	2.983
	낮음	94	3.5191	.5984	(.003)**
심미성	높음	102	3.6745	.5413	2.993
	낮음	95	3.4379	.5682	(.003)**
관리성	높음	103	3.6000	.5545	4.576
	낮음	95	3.2484	.5265	(.000)**
유행성	높음	103	3.0990	.5516	3.741
	낮음	95	2.8105	.5319	(.000)**

*p<.05, **p<.01

Table 3. 30대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 행동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피부관리	N	Mean	SD	t(p-value)
흥미성	높음	81	3.4543	.6775	2.792
	낮음	66	3.1545	.6084	(.006)**
동조성	높음	81	2.3383	.5663	1.282
	낮음	67	2.2209	.5395	(.202)
심리적 의존성	높음	80	3.5725	.6711	2.205
	낮음	67	3.3373	.6102	(.029)*
심미성	높음	81	3.3951	.6309	3.367
	낮음	67	3.0657	.5586	(.001)**
관리성	높음	80	3.4325	.5423	3.757
	낮음	67	3.0896	.5617	(.000)**
유행성	높음	80	2.9150	.6635	2.631
	낮음	67	2.6478	.5473	(.009)**

*p<.05, **p<.01

(3.5191)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의 결과도 역시 높은(3.6745) 집단이 낮은(3.4379)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관리성의 경우도 피부관리가 높은(3.6000) 집단이 낮은(3.2484)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성 역시 높은(3.0990) 집단이 낮은(2.8105)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을 보면 30대도 20대와 마찬가지로 동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인 즉 흥미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심리적 의존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흥미성은 피부관리가 높은(3.4543) 집단이 낮은(3.1545)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았고, 심리적 의존성도 피부관리가 높은(3.5725) 집단이 낮은(3.3373)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의 결과는 피부관리가 높은(3.3951) 집단이 낮은(3.0657) 집단에 비하여 역시 평균이 높았다. 관리성의 경우도 피부관리가 높은(3.4325) 집단이 낮은(3.0896)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성 역시 피부관리가 높은(2.9150) 집단이 낮은(2.6478)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는 40대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 행동요인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0대는 흥미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흥미성은 피부관리가 높은(3.3500) 집단이 낮은(2.8471)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았고, 심리적 의존성도 피부관리가 높은(3.5440) 집단이 낮은(3.1412)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았다. 심미성은 피부관리가 높은(3.4000) 집단이 낮은(2.9818) 집단에 비하여 역시 평균이 높았다. 관리성은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3.4880) 집단이 낮은(3.0882) 집단에 비하여 역시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50대에서는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요인의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연령별 자기효능감 분석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연령별 자기효능감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Table 5에서 보면 20대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3.4787) 집단이 낮은(3.2514) 집단에 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의 분석결과를 보면 30대에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3.5449) 집단이 낮은(3.2498) 집단에 비하여 일반적 자기

Table 4. 40대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피부관리	N	Mean	SD	t(p-value)
흥미성	높음	24	3.3500	.6859	2.871 (.006)**
	낮음	34	2.8471	.6364	
동조성	높음	24	2.1583	.7101	-.596 (.554)
	낮음	34	2.2706	.7013	
심리적 의존성	높음	25	3.5440	.5181	2.673 (.010)*
	낮음	34	3.1412	.6081	
심미성	높음	24	3.4000	.6434	2.676 (.010)*
	낮음	33	2.9818	.5347	
관리성	높음	25	3.4880	.5540	2.652 (.010)*
	낮음	34	3.0882	.5850	
유행성	높음	25	2.8800	.6191	1.939 (.058)
	낮음	34	2.5706	.5870	

* $p<.05$, ** $p<.01$

Table 5. 20대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피부관리	N	Mean	SD	t(p-value)
일반적 자기효능감	높음	102	3.4787	.4446	3.955 (.000)**
	낮음	95	3.2514	.3529	
사회적 자기효능감	높음	103	3.1720	.4922	1.324 (.187)
	낮음	95	3.0752	.5369	
신체적 자기효능감	높음	103	3.1082	.4706	1.730 (.085)
	낮음	95	2.9910	.4823	

* $p<.05$, ** $p<.01$

Table 6. 30대의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피부관리	N	Mean	SD	t(p-value)
일반적 자기효능감	높음	80	3.5449	.3952	4.255 (.000)**
	낮음	65	3.2498	.4388	
사회적 자기효능감	높음	81	3.1235	.5368	1.243 (.216)
	낮음	67	3.0107	.5645	
신체적 자기효능감	높음	79	3.2785	.5058	3.836 (.000)**
	낮음	67	2.9616	.4871	

* $p<.05$, ** $p<.01$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1$),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3.2785) 집단이 낮은(2.9616) 집단에 비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40대와 50대에서는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는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성인여성들의 피부관리와 의복행동,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의 피부관리와 의복행동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피부관리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따른 피부관리 정도는 전문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월 평균 의류지출비가 높을수록, 월 평균 기초화장품 지출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요인 중에서 20대와 30대는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 유행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40대는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관리성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50대에서는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의복행동요인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효능감에 있어 20대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30대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피부관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0대와 50대는 피부관리 정도에 따른 집단간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관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마사지방법, 자신의 체질, 화장품의 부작용에 대한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피부관리에 있어 얼굴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기에 얼굴 뿐 만 아니라 바디, 헤어스타일, 패션 등의 토탈 코디네이션 접근에 의한 연구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효능감은 피부관리 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광옥 · 이정란 (1998) 여성들의 자아존중감과 피부관리 습관에 따

- 른 피부건강 상태. *한국미용학회지*, 4(1), 85-109.
- 김봉인 (1998) 중년여성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태도와 실천행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인 · 나지은 (1999)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기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미용학회지*, 5(2), 401-415.
- 김순구 (1993) 성인 및 노인 집단의 인구통계적 · 심리적 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정 (1995) 연예인유행스타일 선호도에 따른 유행선도력 및 의복태도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 · 박길순 · 김서연 (2005) 여대생 헤어스타일 분석. *복식*, 55(3), 59-68.
- 백경진 · 김미영 (2004) 화장행동과 영향변인 연구-의복관여도, 연령, 얼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892-903.
- 우희정 (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실 (1999) 남성의 성지향 및 심리적 특성에 따른 의복행동과 의모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숙자 (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원 (1999) 일부 여대생의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규화 · 이귀영 (2005) 수도권 여대생의 초기 피부색조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9(2), 40-56.
- 조기여 (1997) 자기효능감과 퍼스널 스페이스에 따른 의복근접도와 화장근접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대규 (1994) 노년층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성형에 따른 의복행동.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1998) 건강증진모델(HPM)에 기초한 여성의 피부관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선옥 · 조고미 · 이춘심 (2005) 눈썹 메이크업 표현에 응용되는 선의 착시 효과. *패션비즈니스*, 9(2), 28-39.
- 한미숙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요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si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and Schunk D.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Creekmore A.M. (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Peer Self". Mich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Research Report, p.239.
- Graham J.A. and Kligman A.M. (1985)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Prager Publisher, New York.
- Horn M.J. and Gural L.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Houghton Mifflin, Boston.
- Hurlock E.B. (1976) "The Psychology of Dress". Arno Press, New York.
- Rudd N.A. and Lennon S.J. (1994) Aesthetic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Theory, In M. DeLong and A.M. Fiore(Eds), *Aesthetics of Textiles and Clothing: Advancing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163-175) Monument : Internation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 Ryckman R.M., Robbins M.A., Thornaton B. and Cantrell P. (198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hysical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5), 891-900.
- Schunk D.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and Rogers R.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2005년 3월 23일 접수)